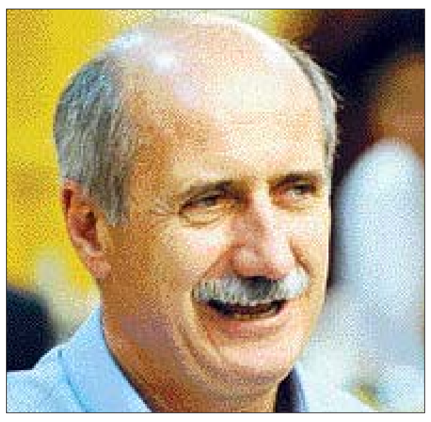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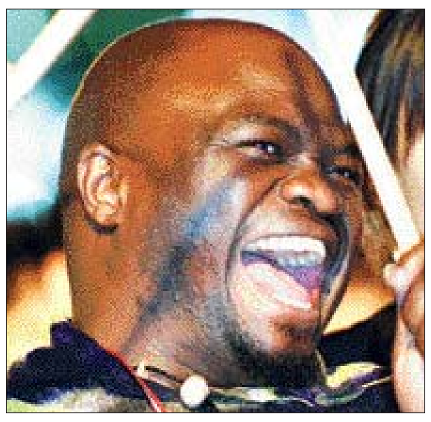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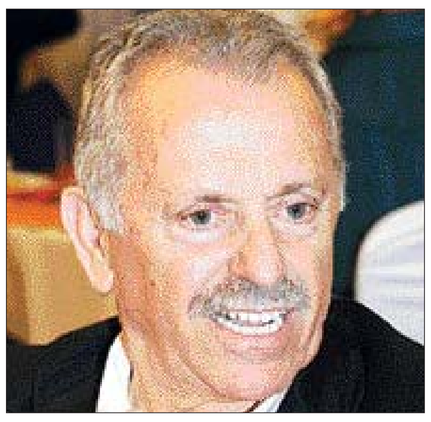
신속하고 편리한 대출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혁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367-3000

제18052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5월 5일 (음력 4월 1일) 월요일
The Kwangju Ilbo

'2013 U대회 광주로' 실사단 6人의 소감

스테판 버그 (단장·스웨덴)	케말 타머 (터키)	말룸베트 라레트 (남아공)	시니샤 야스니츠 (세르비아)	히사토 이가라시 (일본)	스타브로스 두비스 (그리스)
					
"광주는 U대회 위해 충분히 준비된 도시다"	"U대회 뿐만아니라 올림픽 유치도 가능하다"	"1980년 광주의 정당성 세계에 알리는 계기 될 것"	"광주시민의 배려와 환대 고마움 잊지 않겠다"	"가는 곳마다 시민 환대 놀랍고도 기뻤다"	"실사단 국가 민요까지 세심한 준비 감동적"

"광주 준비 만족스럽다"

U대회 실사 마무리 … 실사단 긍정적 평가

한총리 "최상의 대회 되도록 지원"

광주시민들의 염원인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유치의 중대 관문이었던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광주 현지 실사가 5일 성공적으로 끝났다. 광주시는 이번 현지 실사를 통해 U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여건과 역량, 시민들의 열의를 실사단에게 충분히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련기사 3·4·22면, 화보 7면〉

나흘간의 실사를 마친 스테판 버그 실사단장은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종 기자회견에서 "광주시민들의 열의와 개최 역량, 준비상황을 살펴본 결과 아주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버그 단장은 실사 총평을 통해 "U대회를 개최하려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가장 감명깊은 것은 시민들의 열정과 관심으로, 체육계와 재계, 정치계 등 모든 분들이 하나의 일념으로 뭉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정'과 '화합'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도시의 안전성, 정부의 지원 의지도 광주의 강점으로 만족스런 수준이었다"며 "최종 실사 결과는 마지막 실사 대상인 러시아 카잔을 방문한 뒤 집행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사단은 U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인천~광주간 교통문제와 경기장 시설의 적기 확충,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해 이에 대한 보완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이에 앞서 FISU 실사단은 3일과 4일 한승수 국무총리 초청오찬과 두 차례의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한 뒤 월드컵경기장과 염주종합체육관, 대학체육시설 등 10여개의 경기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3일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실사단 초청 오찬에서 한 총리는 "민주·인권·평화·예술의 고장인 광주야말로 U대회를 개최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2013년 광주 U대회가 최상의 대회가 되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각별한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한국은 88올림픽과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 등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광주는 스포츠 시설과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며 "2013년 광주에서 대학생들은 물론 세계인의 화합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스테판 버그 단장은 "U대회는 170개국에서 1만여명 이상이 참가해 많은 경기를 치르는 복잡한 대회로 이를 실행할 만한 도시는 많지 않다"면서 "광주는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 도시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화답했다.

실사단은 경기장 등 실사 현장 곳곳에서 '엑셀런트(Excellent)!' '베리굿(Very good)'을 연발하며 광주의 준비 상황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실사단은 5일 김종량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KUSB) 위원장이 마련한 환송조찬을 끝으로 모든 실사 일정을 마무리하고 출국길에 오른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우암학원 창학 58년 역사의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어린이 날 대체 휴무로 6일자 신문 쉽니다

한전, 민영화 여부 '촉각'

정부 6월말 결정 … 혁신도시 올스톱 위기

정부가 일반 공기업은 물론 이미 이전 계획이 확정된 28개 공공기관에 대해 전면 재검토 의사를 시사함에 따라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올스톱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오는 6월말 결정되는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에 한전이 포함될 경우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최근 공공기관 개혁은 596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말해 공공기관 민영화 통폐합 대상에 예외가 없음을 시사했다.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중인 재정부는 다음달 말까지는 민영화 대상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을 비롯 혁신도시가 이전할 각 지방자치단체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전이 민영화 대상에 포함될 경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을 민영화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한전, 토지공사,도로공사 등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혁신도시로의 이전계획이 확정된 28개 공공기관들도 후속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사실상 올스톱 위기에 처해 있다.

나머지 기관들도 올 상반기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전 계획을 확정지어야 하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심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수산단 정전 1천억원 피해

5개 공장 가동 중단

지난 3일 오후 4시32분께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일부 공장들의 가동이 중단되는 정전사고가 발생, 1천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8면〉

4일 한국전력 광주전력관리처 여천변전소와 한화석유화학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한화석유화학의 공장에 과전압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라이팅 어레스터'(Lightning Arrestor·낙뢰 충격보호장치)가 고장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사고로 한화석유화학과 여천NCC 공장의 가동이 전면 중단되고 대림산업·LG다우케미칼·GS칼텍스 등의 공장 일부 가동이 중단돼 1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여천 NCC의 경우 이번 정전으로 매출 피해액만 600억원 상당, 한화석유화학도 매출 피해가 50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전측은 긴급복구에 나서 사고 발생 11시간만인 4일 새벽 3시께 전력 공급을 재개했지만,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려면 이틀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강필상·박양규·지광현 기자
kps@kwangju.co.kr